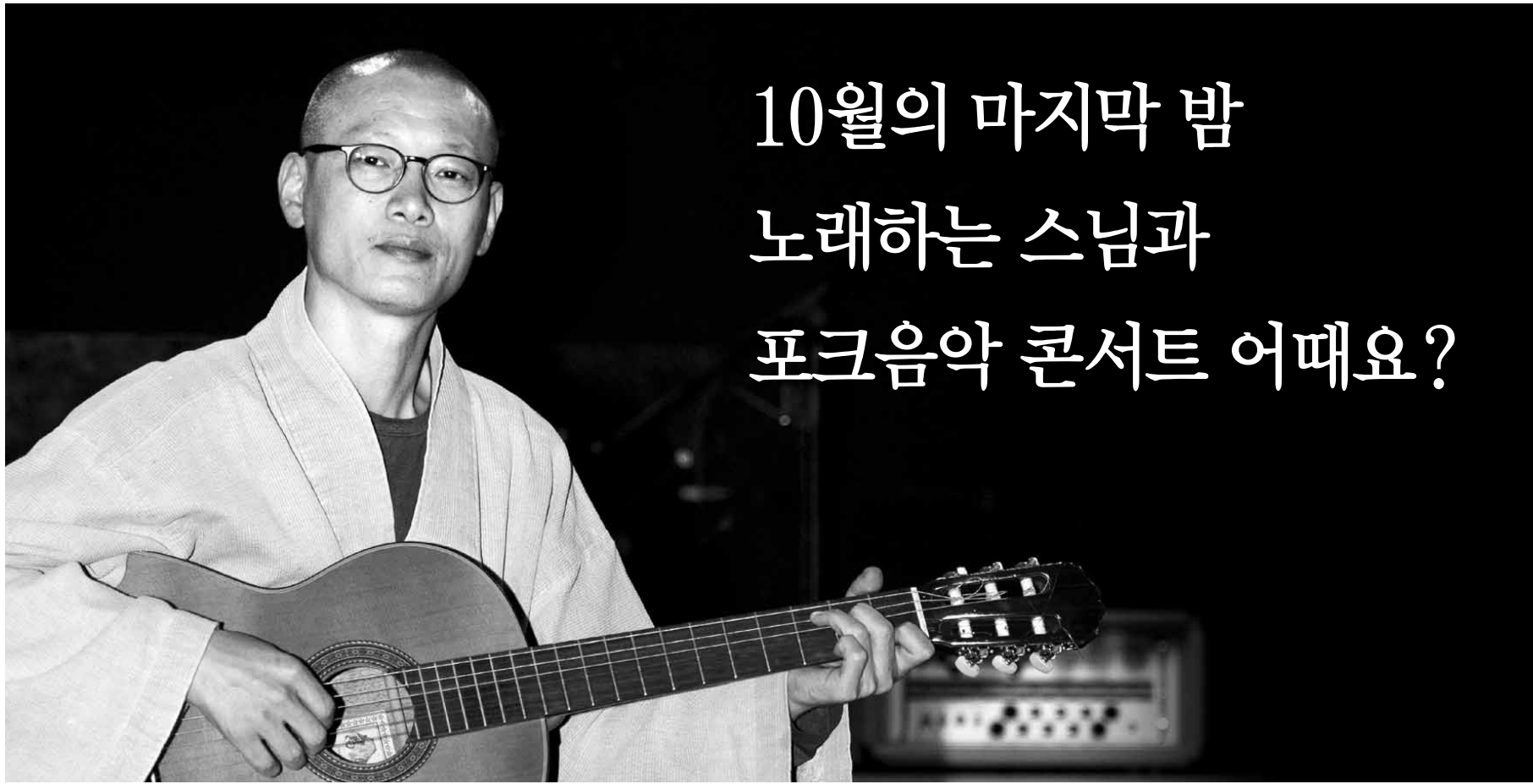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하는 스님과 포크음악 콘서트 어때요?

스님이 대중가요를 노래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질 않았다. 더군다나 전자기타와 베이스 등 밴드 사운드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니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밴드 연습실과 공연장을 겸한 공간에서 만난 수안 스님의 모습은 웬지 이곳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연습실 안에 잔잔한 사운드가 흐르자 수안 스님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이내 발로 리듬을 맞추면서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읊조리듯 부르는 노래들이 귀와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한 곡이 끝나고 빠른 템포의 곡이 이어지자 승복 자락을 흔들며 온몸으로 느끼듯 노래를 이어갔다.

‘노래하는 수행자’ 고불총림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이 지난 여름 첫 포크음악 ‘길을 떠나며’를 발표한 것을 기념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10월의 마지막 밤’인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보혜미안에서 열린다. 콘서트 무대에는 광우영 음악감독과 인디언수니가 함께 오른다.

지난 8월 발표한 음반에는 수안 스님이 가사를 쓰고 광우영 음악감독과 인디언수니가 곡을 붙인 곡과 본인이 작사·작곡한 곡 등 모두 10곡이 담겼다. 특히 10번 트랙 ‘나는’은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가사를 쓴 류근시인이 즉석에서 가사를 쓰고, 인디언수니가 곡을 붙인 노래다.

최근 보혜미안에서 만난 수안 스님은 “포교 활동을 하다가 젊은 친구들이 불교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싶어 음반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지난 2012년 조계종 포교원 산하 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을 역임할 당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동구 보혜미안서

백양사 수안 스님 음반 ‘길을 떠나며’ 발표

“대중음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전하고파”

숫대 제작·광주 불교방송 진행자로 활동



길을 떠나며... 수안

시 해민 스님과 함께 힐링 콘서트의 스텝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다.

“힐링 콘서트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때부터 노랫말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광우영 감독의 권유로 곡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을 마치고 백양사 포교국장으로 내려오면서 힐링 콘서트의 같은 포교 방법을 고민하다가 지난해 백양사 우화루에서 인디언수니와 함께 한 달에 두 번 음악이 있는 열린 법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쓴 노래들을 들려줬는데 참 좋았습니다. 누구나 참여해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에요.”

소임이 많아지면서 올해는 열린 법회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가사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불교는 마음공부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친구, 회사 등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데도 말이죠. 나 자신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

결점이지요.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로 가사로 썼습니다. ‘부처님’ ‘보살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일상의 언어들로 불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말입니다.”

음반을 만든 목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타이틀곡 ‘그랬구나’는 잔잔한 감성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노래다. 김광석과 안치환을 좋아한다는 수안 스님은 본인이 작사·작곡한 ‘함께 걸어오’는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모티브를 얻은 곡이라고 설명했다.

“백양사 행사 시절 큰 가르침을 받았던 서용 큰스님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다”는 수안 스님은 “틈틈이 웃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시절 서용 큰스님께 커다란 붓걸이를 만들어드렸는데 스님께서 “중 노릇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말했던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만큼 손재주가 좋은 수안 스님은 이번 앨범 제작비도 숫대를 만들어 마련했고, 재킷 사진도 본인이 틈틈이 촬영한 산사 사진들로 디자인했다. 또 단청작가 조혜영 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공연을 앞두니깐 떨리네요. 노래와 공연이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는 설렘 때문입니다.”

2000년 출가한 수안 스님은 현재 백양사에서 포교국장과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6-100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서 박화성 문학 페스티벌

25·26일 목포문학관, 문학감상·학술대회·답사 등 다채

목포가 낳은 한국 현대문학의 어머니 박화성(1904~1988)을 기리는 제8회 박화성 문학 페스티벌이 열린다.

25일과 26일 목포문학관(오후 1시~6시)과 광주 일원(답사)에서 개최되는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은 우리문단 최초 본격적인 여성작가로 평가받는 박화성의 생애와 문학을 조명한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박화성연구회(회장 서정자)가 주관하며 푸른사상사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문학행사는 ‘1920년대의 박화성’을 문학 감상과 학술대회, 답사 등을 통해 다채롭게 조명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한일문학의 비교 연구 일환으로 초기 박화성 문학과 사타 이네코의 문학을 비교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식민지 시기 여성 교육의 현실과 관련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여성교육관과 박화성 문학에 내재된 ‘민족’을 토대로 사상적 성격도 재조명한다.

첫날 김문희 소설가 사회로 진행되는 박화성 문학 감상은 그의 대표작을 낭송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유현·김혜경·김경애 시인이 ‘옛 친구’ 일부와 ‘북국의 여명’에서 ‘유랑의 노래’를 낭송한다. 김영진 연구자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박화성의 초기소설과 한일문학의 비교사각’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정영자 신라대 명예교수가 ‘박화성문학의 위상’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장미경(전남대) 연구자가 ‘일제시대 여성교육과 박화성 소설’을, 박경수(전남대) 연구자는 ‘박화성 초기 소설의 ‘민족’ 읽기’를 발표한다. 또한 박애숙(성신여대) 연구자와 남은혜(서울대) 연구자가 각각 ‘박화성과 사타 이네코 초기작품을 통해 본 ‘청춘’의 노래’를, ‘박화성의 ‘백화’ 다시 읽기’를 발표한다.

둘째 날 문학답사는 김신희 광주 YWCA 사무총장 안내로 박화성이 잠시 야학교사로 활동했던 광주 북문교회와 영어를 배웠던 수피아여고를 둘러볼 계획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송화마을 북 페스티벌...25일 광주 노대동 물빛공원

‘책 문화공간 붐 : ’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송화마을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책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지역 작은도서관과 문화예술단체, 학생과 주민 등 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프닝 공연으로 ‘두드리고’ 난타공연이 진행되고, 이어 ‘책속으로 GO GO GO’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쪽에서는 큰 그림책 전시, 그림책 캐릭터 만들기, 그림책 버튼만들기, 책표지 가방 만들기, 다문화 의상체험, 엄마의 다락방 추억속으로, 바깥도서관 인권도서 100선, 바늘로 그리는 들꽃자수 등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책 문화공간 붐 : ’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공간으로 설과 추석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062-681-5432.

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무진생협두리



‘책 문화공간 붐 : ’

공동체, 송화마을 주민협의회, 송화마을 7단지 등 단체가 진행하는 ‘제2회 송화마을 축제’가 열린다. 행사는 송화마을 사진전, 난장음악회, 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등으로 꾸며진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고전방

동구 공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우리밀빵

동구 금남지하상가 E동51호
(분수대침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다나베움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민속촌옆)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작명,개명,신수
궁합,택일,개인지도함

☎062)224-7687

TV스토리

신안동 481-38번지
소형에서대형까지최고의품질
검품없는가격특가판매50%세일 1년무상A/S

☎010-5540-4568

미정

동구 금남로 2가(구)동구청뒤
(옛날구미향)
계절생선회,일식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호선갤러리

동구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그린이옹원

북구 양산동 오리궁덩이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

우리웃빛고을

동구 공동62-3번지
한복맞춤전문

대표 신진아 ☎062)227-6730

사브향광주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79번지 2층
월남쌈구이 사브사브
베트남쌀국수 전문점

☎062)229-0963

행복한밥상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우산공원건너편골목해성유치원옆

대표 정지섭 ☎062)252-3033

아담카페식당

동구천변로 405-10(천변지리산주유소에서콜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

커피홀릭

동구 충장로 3가 11번지
이프유정문건너편2층
직접볶아신선탠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키치
신속한배달카드결제가능

☎1588-3300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열 ☎010-9655-7765

우먼로드

중흥3동 286-36번지
(동부시장입구중흥3동사무소아래)
혼수전문, 이발, 커트, 전문매장

☎062)524-8737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거금조경

북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옴즈주유소옆편
굴취, 전지, 식재, 벌초,산림, 이장

대표 소정택 ☎062)268-7709